

제 2부 작품 감상

生命演習

김승옥

“저 학생 아나?”

나는 한(韓)교수님이 눈짓으로 가리키는 곳을 돌아보았다.

“인사는 없지만 무슨 과 엔진 알고 있죠?”

다방 문을 이제 막 열고 들어선 학생에게 여전히 시선을 주며 나는 대답했다. 검색 대학교복을 입고 그는 어울리지 않게 등산모를 쓰고 있다. 나와 같은 대학졸업반인데, 이름은 모르지만 그의 용모라면 대학 안에서도 알려져 있다.

“설마 나병환자는 아니지?”

한교수님은 몸을 탁자 저편에서 내 앞으로 꺾어 기울이며 무슨 못할 소리라도 해서 미안하다는 듯이 웃으셨다.

“아아뇨.”

고개를 바로 돌리며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교수님께서는 어린애다운

데가 있다. 오십이 넘은 분이 그렇다면 장점이다.

“내가 잘못 봤나? 어째 눈썹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밀어버렸지요. 면도로 싹 밀어버렸어요. 눈썹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시원스럽게요.”

“아니 왜?”

교수님은 바야흐로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러다가 쑥스러운 질문이 었다는 듯이 또 하얀 이를 가지런히 내보이시며 웃으시는 것이다.

“극기(克己)?”

스스로 대답해버렸다는 듯이 교수님은 아까 자세로 돌아갔다. 뒤가 개운치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역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싱긋 웃음을 보내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마음이 환해지는 듯했다.

“요즘 학생들간에 유행이랍니다. 우습죠?”

나의 이런 물음에 그러나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젓고 계셨다. 미소는 여전히 띠셨으나.

“안 우스우세요?”

“자넨 우습나?”

“네, 우스운걸요.”

나는 우습다. 어머니와 누나와 그리고 형도 함께 살고 있었을 때 이니까, 국민학교 육학년 때, 사변이 있던 그 다음해 이른봄이었다. 전쟁중이긴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던 여수(麗水)는 전선에서는 펍 먼 국토 최남단의 항구여선지 인민군이 남겨놓고 간 자취도 비교적 빨리 지워져가고 있었다. 피난갔던 사람들도 거의 다 돌아와서, 폭격 맞은 집터에 판잣집을 세우고 될 수 있는 대로 동란 발발 전의 생업을 다시 계속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 윗녘에서 사태져 내려온 피난민들로 거리는 떠들썩했고 게다가 먼 섬으로 피난 시켜놓은 일급선박(一級船舶)들은 얼른 돌아와 활동할 생각을 아직

못 내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구호물자를 배급해주는 교회엘 부지런히 다니고 있었다. 딱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나와 그리고 남녀공학인 야간상업중학 삼학년애 다니고 있던 누나는 부두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교회엘 다니고 있었다.

여수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다. 그 교회 마당에서 내려다보이는 광장 너머에 부두가 있고 부두 저편으로는 거문도(巨文島)로 가는 바다가 항상 차디차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다. 나와 누나는 나란히 서서 금속처럼 차게 빛나는 해면(海面)을 바라보며 한참씩 서 있곤 했는데 그럴 때야 비로소 나는 어린 가슴에 찾아오는 평안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누나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꼬옥 쥐고 있곤 했다. 교회 안의 발 시린 마룟바닥에 꿰어앉은 것보다는 교회 마당가에 서 있는 그것이 좋아서 나와 누나는 교회엘 다니고 있었다고 해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주는 구호물자가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을 굳이 숨기지도 않아야겠다.

그 이른봄 어느 날 교회에서는 대부흥회가 있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신 이 나라에 부흥회는 얼마든지 있어도 좋다는 듯이 부흥회가 유행하던 그 무렵이긴 했지만 이번 부흥회에는 재미난 데가 있었다. 이번 부흥회를 주관하러 오신 전도사는 나이 스물인가 되던 어느 해에 손수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리신 분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라는 것이었다.

부흥회의 첫날밤이었다. 독특한 선전 때문인지 부흥회는 대성황이었다.

장소는 제빙공장이 폭격을 맞아 된 빈터였는데 서너 걸음 저쪽은 파도가 밀려와서 찰싹이는 소리를 내고 물러가는 부두였다.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며 고촉(高燭)의 전등이 대낮처럼 어둠을 쫓아주고 있었다. 호흡이 급한 찬송가 소리와 수많은 사람이 발산하는 열이 이른봄 밤의 한기를 못 느끼게 해서 좋았다. 나와 누나는 손을 잡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강단의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해가 지면서부터는 몸이 달 정도로 기다리던 부흥회였다. 누나는 망측한 전도사라고 욕을 실컷 퍼부어놓고 나서는 나를 껴안고 깔깔대며 웃어대는 품이 나보다 더 기다려지는 모양이었다. 형도 이것만은 흥미있는 일이라는 듯이 다락방에서 덜커덩 소리를 내며 몸을 뒤적이고 있었다. 어머니도 침울한 표정으로 굳어져버린 얼굴에나마 진기한 것을 보았을 때 생기는 미소를 살짝 보여주시던 것이 나와 누나는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다. 아아 어머니는 진기한 것을 보면 웃으시는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문제의 전도사는 얼굴이 약간 창백하달 뿐 보통사람과 다름이 없었다. 창백하다고는 해도 집에 있는 형에게 비하면 아주 건강체였으니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키는 나 지막하고 눈이 가늘어서 날카로웠다. 서른 대여섯쯤 보이는 얼굴엔 주름도 별로 없는 듯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검정 넥타이를 가슴에 드리우고 있었다. 검정색 양복을 입었는데 윗도리는 찬송가 소리가 열광적으로 높아갈 때 벗어버렸다.

저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손수 칼로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내 버렸을까 하고 나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못 믿겠다는 눈치였다. 차라리 그 전도사 곁에 서 있는 키가 유난히 크고 얼굴이 홀쭉하게 생긴 미국사람이 그랬다면 나는 믿었을지도 몰랐다. 그편이 훨씬 그럴듯해 보였으니까. 그날 밤 나는 자꾸, 지금 생식기가 없는 사람은 저 미국사람이다, 라는 착각에 여러 번 빠져들곤 했다. 그러다가 보니 그 전도사가 왜 그런 짓을 해버렸는지조차 어느덧 까먹게 되어서 누나에게 다시 물어보고 나서야 깨닫곤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성령(聖靈)을 받고 그랬다는 것이 아닌가. 내게도 성령이 찾아오는 어느 순간이 있어 나 스스로의 목이라도 잘라버려야 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땀과

노래와 노래박자에 맞추어 치는 손뼉 소리가 미친 듯이 날뛰다가 가끔 딱 그치고 갑자기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생기곤 했는데 그런 때엔 나는 나지막이 들려오는 파도의 찰싹거리는 소리가 못 견디게 그리웠고 오늘밤 여기에 온 것이 그리고 앞자리를 차지한 것이 어쩌나 후회되던지 자꾸 허만 깨물었다.

그 악몽과 같은 부흥회의 밤이 지나자 나는 살아나는 듯했다. 그날 밤처럼 땀을 흘린 흘려본 때가 그 전엔 없었을 것이다. 그 후로도 사랑하는 형제여, 라고 부르짖던 전도사의 웅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올 때면 나는 등에 땀이 주르륵 흘러내림을 느꼈던 것이다.

흘끗 곁눈으로 보니 그 눈썹 없는 친구는 어느새 의자를 하나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알루미늄처럼 하얀 표정이었다.

“옛날에 전도사가 한 분 계셨어요?”

나는 느닷없는 사실을 늘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응?”

교수님은 무슨 얘기냐는 듯이 고개만 빼어 내 편으로 내미셨다.

“저어 수 년 전에 전도사가 한 분 있었는데요……”

나는 말소리를 낮추어가지고

“자기 섹스를 잘라버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허허허.”

교수님은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웃으셨다.

“왜? 그것도 극기?”

“선생님 방금 분명히 웃으셨죠?”

“원 자네두……”

교수님은 내가 귀여운 모양이었다. 나도 한교수님이 정답다.

교수님은 다시 웃으시는 것이었지만 무슨 근심이 있는 사람이 마지못해 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교수님은 무언지 허둥지둥하고 계시는 빛이었다. 아까 교문에서 마침 만나서, 선생님 차

한잔 제가 사겠습니다, 했을 때도 무척 당황하신 표정이더니 금방 무슨 구원이라도 받은 듯이 나를 따라, 아니, 오히려 내 앞장을 서서 이 다방으로 들어온 것만 보아도 그랬다.

나는 엘리자베스 조(朝)의 비극작가들에 대한 연구논문을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해야 완성해놓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참고서를 몇 권 빌려봤다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나를 아들처럼 사랑해주시는 한교수님께 논문을 과 주임교수께 제출하기 전에 우선 보이고 싶어서 이 다방으로 모신 것인데 교수님의 이런 쓸쓸한 얼굴 앞에는 원고지 몽치를 내밀기가 아무래도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포기하기로 해버렸던 것이다.

“선생님, 극기라는 말이 맘에 드시는 모양이죠?”

“들자…… 글썄…… 안 그렇기도 하고……”

또 웃으신다. 저렇게 자꾸 웃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키가 크지 않은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근엄하다고까지 할 정도의 침착성을 이 교수님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촌스럽지 않고 도리어 세련을 수식하고 있는 것은 이분이 외국바람을 쐬신 덕택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그것이 모두 허물어져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쩐지 야비하게 그래서 어쩐지 두렵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수님도 나의 그런 기분을 엿보신 모양이었다. 무어라고 화제를 바꾸고 싶으신 모양이어서 나는 얼른 생각나는 대로 뉴스를 꺼냈다.

“참, 사회학과 박교수님 사모님께서 신병으로 돌아가셨다죠?”

“……”

그러자 교수님은 입이 벌어붙은 듯한 표정을 하시고 무서울 정도로 의심에 찬 시선을 내게 보여주셨다.

“장례식이 내일이라던데요?”

“응.”

신음하듯 대답하시더니 방금 전의 표정을 재빨리 무너뜨리려고 교수님은

“교수 가족 동태에 대해서도 주의가 대단하군.”

하고 웃으시며 비꼬아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져서 엉겁결에

“할 얘기가 없어서요.”

라고 말해버렸다. 영문은 알 수 없지만 죄라도 진 기분이었다. 교수님은 웃으시며 딱 얘기를 꺼내주셨다.

“지금도 오(吳)선생 만나나?”

“네, 가끔 만나죠.”

오선생이란 만화가로서 주로 Y라는 일간신문에 연재만화를 그리고 있는 분인데 대학 교내신문 편집을 하고 있던 나는 신문 관계 일로 그분을 만나야 할 기회가 있었다. 한번 만나자 어쩐지 좋아져버려서 찢찢매었다.

겨우 서른둘밖에 안 된 나이에 비하면 얼굴에는 수많은 그늘이 곁에 곁을 쌓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한교수님과 내가 좋아하는 오선생을 서로 소개시켜드렸더니 두 분 다 즐거운 모양으로 악수를 한참 동안이나 하고 서 계셨다. 그 다음번에 오선생을 만났을 때, 그 교수님 아주 좋으신 분이더군 하며 말수 적은 성미에서도 한 마디 잊지 않았다.

“그분 요즘 그리는 만화는 펍 어려워졌더군.”

“벌써 십여 년 만화만 그렸더니 소재가 고갈할 때도 되었지요.”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유퍼를 벗어나고 있던 말이야.”

“자기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죠.”

“맞았어. 바로 그거야. 자기 세계를, 그래, 그분도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지.”

늦가을 햇살이 유리창 밖에서 하늘거리고 있었다. 레지가 다가와서 유리창을 배경으로 하고 꾸부리고 서서 빈 찻잔을 거두더니 살며시 비켜서듯 돌아갔다. 레지의 허리를 굽힌 실루엣이 아직도 남아서 아물거리는 듯했다.

‘자기 세계’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몇 명 나는 알고 있는 셈이다. ‘자기 세계’라면 분명히 남의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서 마치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성곽에서 대기는 연초록빛에 함뿍 물들어 아른대고 그 사이로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으리라고 나는 상상을 불러일으켜보는 것이지만 웬일인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세계’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 성곽에서도 특히 지하실을 차지하고 사는 모양이었다. 그 지하실에는 곰팡이와 거미줄이 설새없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는 모두 그들이 가진 귀한 재산처럼 생각된다.

요즘은 ‘하더라’ 체를 쓰기 좋아하는 영수라는 내 친구만 해도 그렇다. ‘마도로스 수첩에는 이별도 많더라’ 라느니 ‘동대문 근처엔 영자도 많더라’ 라는 시시한 유행가 구절이나 틈틈이 흥얼대고 있는 듯 하지만 실은 대단히 진지한 태도로 여자들을 하나하나 정복해나가고 있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눈이나 입 가장자리에 매력이 있었다. 초급대학을 그나마 중퇴하고 지금은 군대엘 갈까 자살을 할까 망설이고 있는 그이긴 하지만 꾸준히 시도 써모으고 가끔 옷도 새걸로 사입고 하였다. 나하고는 여수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친한 사이로 지냈다.

우리 가족은 내가 국민학교도 졸업했으니라는 이유를 내세우긴 했지만 기실은 형의 죽음에 반 미쳐버리신 어머니가 서둘러서, 환도가 있을 때 서울로 이사했는데 그 후로도 방학만 되면 나는 여수엘 내려가서 그와 바닷가를 헤매었던 것이다. 지금 동대문 근처에서 싸구려 하숙엘 들어 있다. 항구는 사람의 성격에 어떤 염색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고 나는 그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그건 마치 어렸을 때 형을 보듯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여자를 정복하는 데 무어랄까 천재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그러한 자기의 천재에 의지하여 한 세계를 형성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시를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차라리 시를 쓴다는 대의명분이 그의 정복행위를 부추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자줏빛 스웨터를 입고 학교로 나를 찾아와서는

“런민(隣閔)! 런민!”

하며 혀를 끝끝 차는 날이라면 으레 또 하나의 인생을 좌절시켜주고 온 날인 것이다.

“런민! 런민! 아 런민뿐이여.”

“강선생께서 하시는 사업은 착착 성공중이시라.”

내가 이렇게 축하를 아뢰면

“그녀도 울고 나도 울었더라.”

라고 담배를 꺼내며 대단히 만족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그도 단 한번은 대실패를 한 적이 있다. 여자에게 최음제(催淫劑)를 사용했더라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기 전 어느 때가 다음과 같은 수필까지 써서 내게 보여준 적이 있는 그로서는 정말 일대 절망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요힘빈! 총각들은 최음제의 위력을 과도히 신앙한다. 그래서 그 약품이 총각들간에서는 사랑의 매개물질로 간주되어 있는 법도 있다. 피강간(被強姦) 뒤에 으레 있는 처녀의 눈물도 그들에게는 공식적인 식순(式順)의 일구(一句)에 불과하다. 참 못마땅한 일이다. 도덕자연하는 나의 이러한 언사가 도리어 못마땅하다고 할는지 모른다. 좋다. 우리들 총각들간에는 도덕자연하는 것도 위악(僞惡)의 품목에 참석할 수 있으니 나의 위악적인 이런 언사가 나를 우리의 본부(本部) ‘다방 지하실’의 야단스러운 청춘 속으로 못 들이밀 바 못 되노라, 예행.

이런 논리가 나의 머리 위에 비트의 월계관을 올려놓고 박수했다. 운운.’

그 실패 이후로는

“살기가 더 싫어졌다.”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련민! 련민!”

두음법칙 따위가 어감의 감손(減損)을 가져온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기어이 ‘연민’을 ‘련민’으로 발음하며 쓸쓸해하였는데 그 ‘련민’의 음영(陰影)도 최음제 사건 이후엔 꽤 많이 변해 있었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 그는 자기의 성(城)이 아니라면 최소한도 자기의 지하실은 자니고 사는 유복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이건 여담이지만, 한교수님의 딸도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해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적이 불안해진 적이 있다. 여고 2학년이라면 대부분이 센터멘탈리스트라고는 해도 그에게는 당해낼 수 없는 생기조차 곁들어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게 뭘까?”

지난 5월 어느 일요일, 한교수님 댁엘 놀러갔을 때였다. 햇별이 여간 좋은 게 아니어서 나와 그애와 사모님은 등의자를 마당가에 내놓고 앉아 한담을 하고 있다가 발 끝으로 흙을 툭툭 차며 등의자를 뒤로 찼했다 앞으로 숙였다 하고 있는 그애가 하도 귀여워서 탄식하듯 내가 입 밖에 낸 말이었는데

“여신(女神)의 멘스?”

라고 그애는 가벼웁게 통겨버리는 것이었다.

“응?”

나는 얼떨떨해져버려서 코먹은 소리로 반문했더니

“아닐까?”

그에는 숙인 얼굴에서 눈만을 살짝 치켜떠 보며 부정의문법으로 또 한번 쥐어박았다.

“호오, 여신에게도 멘스가 다 있을까?”

사모님께서 마침 이렇게 대답을 하심으로써 그 애긴 그 정도로 그쳐서 나는 화끈 단 얼굴을 감출 수가 있었지만 이젠 못 당하겠는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자기 세계가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더라도 무안하지 않으려고 나는 짐짓 앙케이트를 훑내넌 장난조로 교수님께 물었다. 교수님은 담배를 꺼내 입가에 무시며

“자네 보기엔 어때?”

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성냥을 그어 대어드리며, 교수님의 목소리를 본떠서

“글쎄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했다.

“허허허허.”

교수님은 담배를 한 모금 천천히 빨고 나시더니

“있지.”

라고 말씀하시고 빙긋 웃으셨다.

“있긴요?”

내가 억지를 쓰는 체했더니

“이래봐도 나의 세계는 옥스포드제(製)인데……”

“글쎄요, 성벽이 워낙 높아서 보여야죠”

“호응.”

확실히 이 교수님께서는 어려운 구석이 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은 다소간에 냉혈동물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라고 말씀하시며 당신도 극도의 냉혈동물이었다고 말하시지만 젊었을 적엔 몰라도 지금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외국이라면 대개 서구를 가리키는 것이니 아마 그네들의 합리주의와 개인주의가 몸에 배어 그럴 것이라고 변호를 해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아아 성숙한 처녀처럼 믿음직한 그대 지식인이여”라고 말해놓고 웃으시고는 “그러나 나처럼 탈선할 가능성이 많지” 하고 자조를 하곤 했다. 외국서 학위를 받고 온 교수들은 강의 노트를 얻어오는 대신 모든 것을 거기에 지불해버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감상(感傷)을 다시 길러야 하고 다시 인사를 배워야 하고 다시 웃음을 가져야 한다고 싱거운 조로 말하시고는 곧잘 나더러 “자네도 외국 갔다오면 별수없지” 하시다가는 이내 “참, 자네 같은 사람은 아예 외국에도 갈 수가 없어” 하며 놀려주시는 것인데 그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한마디로 얼마나 기막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과정 속에는 번득이는 철판(鐵片)이 있고 눈뜰 수 없는 현기증이 있고 끈덕진 살의가 있고 그리고 마음을 쥐어짜는 회오(悔悟)와 사랑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봄바람처럼 모호한 표현이 아니냐고 할 것이나 나로서는 그 이상 자세히는 모르겠다.

역시 여수에서 살 때다. 그 즈음 형은 어머니를 죽이자고 끈끈한 음성으로 나와 누나를 찌고 있었다.

피난지에서 돌아와보니 그렇지 않아도 변변치 않던 집이 거의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폭격이나 당해서 그렇다면 이웃에 창피하지는 않겠다고 누나는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집은 한길이가 가까운 산비탈에 있었다. 어머니도 누나와 같은 생각에서였던지는 모르나 인부를 두 명 사서 한낮 걸려서 깨끗이 처치해버리고 다음날은 그 자리에 판잣집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흘 걸려서 된 집은 내 맘에 꼭 들었다. 온돌방 하나와 판자를 깐 방 하나 그리고 판자를 깐 방에는 다락방을 만들어 형이 썼다.

다락방 밑의 판잣방에 담요를 깔고 우리 식구가 거처했고 온돌방은 어머니처럼 생선이나 조개 따위의 해물을 새벽에 열리는 경매시장에

서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첫 기차를 타고 순천(順天)이나 구례(求禮) 방면의 장이 서는 고장을 찾아가서 팔고는 막차로 돌아와서 다음날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생활인 생선장수 이주머니들의 하숙방으로 내주고 있었다. 우리 집 외에도 근처에 그런 하숙을 치고 밥을 먹는 집이 몇 더 있었는데 경매시장이 있는 부두와 기차역에 각각 다니기가 좋은 장소여서 집집마다 육칠 명씩 단골이 있었다. 우리 집에서는 누나가 부엌일을 맡고 부엌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치러 받는 하숙셈이라든지 잔살림살이는 모두 맡아하고 있었다. 낮에는 빨래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하느라고 겨우겨우 야간상업중학엘 다녔는데 공부는 늘 일등이었다. 세책점(貰冊店)에서 소설을 빌려다가 톱툰이 보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상상력이 대단했다. 곧잘 작문을 지어두었다가 나와 단 둘이 있게 되는 시간이 생기면 조용한 음성으로 내게 읽어주곤 했다. 그것이 누나의 나에 대한 최대의 애정표시였다. 나도 학교가 파하면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특히 뒤결의 돼지를 길러내는 게 큰 임무였다. 수놈으로서 중돼지를 넘어서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흔 살이라고는 해도 젊은 티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십 년이 됐는데 그 뒤로 도맡아하신 고생이 어머니의 살결을 거칠게 해버린 것이어서 고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스물이고 서른이고 마흔이고 그대로 남아 있을 단정한 용모였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장사는 덕을 보기도 하고 손을 보기도 했다. 예컨대 순천 같은 도시로 장사를 갔다오는 날엔 빈 양동이를 들고 돌아오지만 다른 읍(邑) 같은 곳에서는 장날에 가면 손님들이 슬슬 피해버리고 악마 같은 얼굴을 한 이주머니들에게나 가서 물건을 산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별로 말이 없는 분이였다. 기쁠 때엔 물론 웃으시지만 통 말은 안 했다. 보통 형에게 얻어맞을 때 그러는 것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눈에 파랗게 불이 켜진다. 동녘이 흰할 때 바다를 향해서라기보다는 차라리 육지를 향해서 깜박이는 등대불의 그 희미

하나마 금방 눈에 띄는 빛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말은 없다.

형은 종일 다락방에만 박혀 있다가 오후 네시나 되면 인적이 드문 해변으로 나갔다가 두어 시간 후에 돌아와서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밥은 마루방에서 나와 누나와 함께 셋이서 먹는 것이지만 밥만 먹으면 그냥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사닥다리를 빼걱거리며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아아 형은 하늘로 가는구나, 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왔다. 다락방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건 하늘에 있었다.

그곳은 지옥이었고 형은 지옥을 지키는 마귀였다. 마귀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획은 전쟁이었고 전쟁은 승리처럼 보이거나 실은 패배인 결과로서 끝났고 지쳐 피를 토해냈고 —마귀의 상대자는 물론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 채 이겼고 이겼으나 복종했다. 형은 그 다락방에서 벌레처럼 끊임없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형은 스물두 살이었다. 사변 전에 폐가 아주 나빠져서 중학교를 도중에 그만두었다. 하다못해 유행가 가수라도 되겠다고 새벽과 저녁으로 바닷가를 헤매며 소리를 지르고 있더니 그런 지경을 당해버린 것이었다. 나는 국민학교 이학년 때 학교 담임선생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들은 다음날 형의 발자국을 밟고 해변으로 따라나간 적이 있었다. 바닷물은 빠지고 있었고 바위들은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서서 나를 둘러싸고 기분 나쁘게 웃어댈 듯이 시커멓게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오돌오돌 떨면서 움직이기가 귀찮아, 물기가 땀뻑 뻗 모래 위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때 바다 저편에서 들려오듯이 아득한 형의 노래가 들려온 것이었다. 바닷속으로 바닷속으로 비스듬히 가리앉아가는 듯한 환상 속에서 나는 형의 폐병을 예감했을 것이었다.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을 — 형을, 동시에 어머니를, 알았을 것이었다.

“나갈까?”

하고 교수님은 내게 물으셨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저어 바쁘십니까?”

“아아니 뭐…… 술이라도 마시고 싶어지는군.”

“네? 정말 드시겠어요? 저, 제가 좋은 데를 한 집 아는데요.”

“흐응. 술이란 좋은 거지?”

교수님은 별로 마시고 싶지도 않으신데 괜히 한번 그래보신 모양이다.

나는 짜증이 났다.

“나가실까요?”

하고 나는 벌떡 일어서면서 거의 강제적인 어조로 말했는데 교수님은 별로 불쾌히 여기지도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검색 바탕에 점점 사각무늬가 배치되어 있는 교수님의 넥타이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창밖을 치르고 나오자 교수님은 벌써 밖에 나와서 잎이 지고 있는 플라타너스 곁에 서 계셨다. 저녁 햇살이 번져가고 있는 가을 하늘을 쳐다보고 계셨는데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는 소녀 같은 애수가 깃들어 있었다. 보는 사람에게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일으키지 않게 진실한 표정이었다.

“정말 술이라도 드시죠?”

“그만두지.”

“……”

교수님과 나는 걷고 있었다.

무슨 생각에서였던지 교수님은 문득

“옛날 얘기 하나 들어보겠나?”

하고 말하시고 웃으셨다.

“네, 해주세요.”

나는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는 빛을 보여드렸다.

<정순은 한마디로 총명한 여자였다.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자기만이 아니라는 걸 적어도 알고 있었다. 설령 그것이 당시 인습의 강요로 얻은 사고방식이라 할지라도 곁에서 보기에 이슬이슬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가질 수 없도록 무어랄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사랑을 한다고 해도 리얼하다고나 표현해야 할 것으로 한교수보다는 적극적으로 애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는 자기 편에서 절교장을 보냈다가도 그 다음날 새벽 동이 환해지기 바쁘게 부석부석한 눈으로 한교수의 하숙으로 달려와 방긋 웃으며, 저 지독한 거짓말쟁이예요,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사죄를 하기도 하는 하여간 가슴이 타도록 한교수를 사랑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암과 같은 이기심을 발휘하여, 대학 졸업 후 런던 유학을 꾀하고 있는 한교수에게 그 계획을 포기 하라고 희생을 강력히 요구해오기도 하는 것이었다. 동감이었다. 도쿄(東京) 유학을 온 학우들간에 ‘국화(菊花), 단(但), 남성(男性)’이란 별명을 가진 한교수에겐 정순과의 사랑이 무척 풀기 힘든 선택 문제로, 하나의 시련으로 하나의 굴레로 압박해왔다. 졸업 날짜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랬다. 그때의 일기장을 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정순과의 결혼이나 젊은 혼을 영국의 안개 낀 대학가에서 기를 것이냐. 둘 다 보배로운 일이 아닌가. 둘 다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기꺼운 일이냐. 그러나 정순은 나의 모든 학업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기다릴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과연하다고 도쿄 유학도 겨우 용인해주고 있는 고국의 부모들이 딸의 졸업 후에는 절대로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자기가 일본 여성이라면 서른 살이 문제가 아니라 마흔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자기의 부모는 이해심 적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기다리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기다리겠지만 늙다리가 되어서는 자기 편에서 차마 결혼을 승낙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 결혼을 해놓고

해서 내가 초가을 햇살이 눈부신 해변에서 들은, 지옥으로부터 나의 가슴에 육중하게 울려오는 저 끔찍한 음모를 납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차라리 수 년 전 어느 새벽에 발자국을 밟고 따라가서 소라껍질 같은 나의 마음속에 잊지 않으리라 담아두던 노랫소리의 빛깔로 하여 형의 이런 계획은 당연하다고 추억거릴 수 있었다고 하는 편이 나았다.

형을 따라 새벽에 해변엘 나간 적이 있던 그 무렵 어느 날 저녁 때였다.

어머니는 마흔이 넘어 보이는 사내를 하나 데리고 집으로 왔다. 어머니가 생선장수를 시작하기 전으로 바느질로써 용돈을 벌었고 남아 있던 살림살이를 하나씩하나씩 팔아서 살고 있었을 때였다. 사내는 갯바람에 그을려서 약간 야윈 듯한 얼굴에 눈이 쌍꺼풀져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다는 듯한 태도를 가진 그 사내는 그날 저녁에 어머니와 함께 밤을 지내고 다음날 새벽 일찍이 돌아갔다. 그날 나와 누나는 공포에 차서 덜덜 떨며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말았다.

중학교에 다니던 형도 엇치락뒤치락하며 밤을 그대로 새우고 있는 눈치였다. 다음날 형은 학교엘 가지 않았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망 후에 어머니가 맞아들인 최초의 사내였다. 일본을 상대로 하는 밀수선의 선장이라는 건 그 사내가 그날 밤 이후로도 몇 차례, 몇 차례라고는 하나 시일로 따지면 거의 일 년 동안 우리 집에 드나들 때 자연히 알게 되었다. 왜 어머니가 사내를 집안으로 끌어들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인사도 시키지 않았고 말도 못 건네게 하였는지 그때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풍족하진 못했지만 돈이 없다고 짜증을 부리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은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고 사내를 우리들에게 아버지처럼 행세시키려 드는 눈치도 아주 없었다.

사내가 다녀간 다음날에는 어머니는 형에게 무척 미안하다는 태도를 지어 보였다. 형으로 말하자면, 처음엔 어리둥절했던 모양이다. 무

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은 전혀 서려 있지 않은 분노를 자기의 침묵과 눈동자에 담고 있었으나 그뿐 아무런 짓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의 행동에 어떤 결심을 갖다붙일 수 없었던 것은 오로지 자기의 나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두번째의 사내는 세관 관리였다. 털보였다. 눈이 역시 쌍꺼풀져 있었다. 술고래인 모양으로 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있었다. 세번째 사내는 헌병문관(憲兵文官)이었다. 어머니보다 젊은 듯했다. 안색이 창백하였으나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는 항상 적의어린 시선을 쏘주고 있었다.

이때 형은 학교를 그만둔 뒤였다. 그 무렵 형의 약값으로 돈이 많이 들어서 살림이 상당히 쪼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미안해서였던지 아니면 이제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서였던지, 세번째의 사내가 처음으로 다녀간 다음날 형은 드디어 어머니를 때리고 만 것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불이——희미하나 금방 알아볼 수 있는 파란 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영원한 복종과 야릇한 환희와 그러나 약간의 억울함을 나와 누나는 본 것이었다. 그러한 빛깔을 한 불이 켜지면 누나는 안타까워서 동동 뛰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포기해버리고 있었으므로 누나를 달랠 수 있는 여유조차 갖고 있었다.

어머니는 형에게 연애를 권했다. 형은 학교를 그만둔 뒤로는 썩어가는 폐에 눈물어린 호소를 해가면서 문학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으므로 어머니는 그런 핑계를 내세우고, 연애는 네 문학공부에 어떤 자극이 될지도 모른다고 권했으나 형은 흥 하고 웃어버렸다.

한 사람이 배반했다고 해서 자기까지 배반해버릴 수는 없었던 모양인가. 더구나 배반한 사람이 어떤 의사이전(意思以前)의 절대적인 지시 아래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가. 피난지에서 어머니가 한번 좋은 처녀가 있는데 결혼할래, 하고 물었

더니, 아무리 전쟁중이라도 어머니가 미쳐버린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라는 대답을 하고 나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씩씩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는 얼른 고개를 숙임으로써 그 시선을 피했지만 떨구는 어머니의 눈 속에는 그 파란 불이 켜져 있었던 것이 기억된다. 피난지에서 돌아와서부터 어머니가 사내를 집안으로 데리고 오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형에게는 마찬가지였다. 형은 무엇인가를 기어이 하고야 말리라고 예기하고 있던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부스럭거리며 살고 있는 형을 공포에 찬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누나와 나는 유일한 동맹이었다. 내가 어린 날을 그래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이 어두운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숨기며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있듯이 나와 누나도 형과 어머니에게서 몇 가지 비밀을 만들어놓고 우리의 평안과 생명을 그 비밀왕국 안에서 찾고 있었다.

누나가 밤늦게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기다리고 있다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밖으로 나간다. 누나도 석유 램프불의 심지를 줄여놓고 나서 역시 살그머니 빠져나온다. 나와 누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어두운 숲그늘을 밟고 산비탈을 올라간다. 해풍이 끊임없이 술술 불어오고 있다. 소금기에 절인 잎사귀들은 사그락대고 있다. 뱃고동 소리가 부우웅 울려오고 우리가 산비탈을 올라감에 따라서 부두 쪽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크게 들린다. 내려다보면 향도의 크고 작은 불빛들이 눈짓을 보내주고 있다. 드디어 철조망이 나선다. 칙칙한 색으로 숲이 살랑대고 있는 철조망 저편에는 석조저택이 우울하게 서 있다. 몇 개의 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현관에도 불이 켜져 있다. 우리는 철조망 이편에서 납작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엎드려서 우리는 흙내음과 풀내음을 들이마시며, 뜨거워져가는 숨소리를 느끼며 잔뜩 긴장하여 기다리고 있

다.

이윽고 현관문이 밖으로 빛을 쏟아내면서 열리고 애란인인 선교사가 비척비척 걸어온다. 갱마르고 키가 크다. 불빛 아래서는 번쩍이는 안경을 쓰고 있다. 유령처럼 그는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온다. 어떤 때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기도 한다. 사그락대는 나뭇잎 소리들이 이 밤의 정적을 더 돋우고 있을 때 그가 이편으로 걸어오는 발짝 소리는 무한히 신비스럽게 느껴진다. 이윽고 왔다. 우리가 엎드려서 힘을 누에다 모으고 있는 철조망 저편에는 몇 그루의 측백나무가 어둠에 싸여 있고 그 측백나무 아래에는 벤치가 하나 있다. 그는 드디어 거기에 앉는다. 털썩 주저앉는다. 나는 누나의 한 손을 꼭 쥐고 있다. 손에는 어느덧 땀이 흐르고 있다.

선교사는 멀리 아래로 보이는 시가지의 불빛들을 꿈꾸듯이 보고 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금기를 냄새 맡는 듯이 그는 코를 두어 번 킁킁거려본다. 드디어 바지 단추를 끄른다.

홍청대는 항구의 여름밤과는 상관없이 바위처럼 고독한 자세 하나가 우리의 눈앞에서 그의 기나긴 방황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도 뛰 어넘기 힘든 조건이었던가. 일요일에 교회에서만 선교사를 대하는 신도들에게는 도대체 상상될 수 없는 그래서 무수한 면(面)을 가진, 아아 사람은 다면체(多面體)였던 것이다. 바람은 소리없이 불어오고 앞들조차 이제는 숨을 죽이고 이슬방울들이 불빛에 번쩍이면서 이 무더운 밤이 해주는 애기에 귀를 기울일 때 나의 등에도 누나의 등에도 어느새 공포의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윽고 끝났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숨처럼 긴 숨을 몇 번 쉬고 느릿느릿 일어나서 바지를 추켜 입고 힘없이 비척거리며, 온 길을 되돌아간다. 그제야 우리들은 쥐었던 손을 놓고 일어선다.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기진맥진하여 불빛들이 사는 비탈 아래로 내려온다.

우리의 왕국에서 우리는 그렇게도 항상 땀이 흐르고 기진맥진하였다. 그러나 한 오라기의 죄도 거기에는 섞여 있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했고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낮에 우리는 가끔 그 선교사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전연 딴 사람처럼 명랑해 보였다. 명랑하게 달려가는 자동차의 뒤에서 우리는 늘 미소를 가질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우리가 꾸며놓은 왕국에는 항상 끈끈한 소금기가 있고 사그락대는 나뭇잎이 있고 머리칼을 나무끼는 바람이 있고 때때로 따가운 빛을 쏘는 태양이 떴다. 아니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기보다는 우리들이 그것을 의식하려고 애쓰고 있었다고 하는 게 옳겠다. 그러한 왕국에서는 누구나 정당하게 살고 누구나 정당하게 죽어간다. 피하려고 애쓸 때론도 아예 없고 그것의 온상을 만들어주는 고독도 없는 것이며 전쟁은 더구나 있을 필요가 없다. 누나와 나는 얼마나 안타깝게 어느 화사한 왕국의 신기루를 찾아 헤매었던 것일까!

햇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해변에서 형이 어머니를 죽이자고 했을 때 나는 훌쩍훌쩍 울어버리고 말았지만 그것은 형의 말에 반대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형에게 얼마든지 동감할 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형은 그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성자의 지위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누나도 사실 어머니에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 불만이 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었다. 누나는 가장 영리하였다. 그 눈부신 해변에서 누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한 개의 표정도 바꾸어 짓지 않았지만 그것은 누나의 아름다운 노력일 뿐이었다. 누나는 영리하였다. 형이 어머니의 거의 문란하다고나 해야 할 남자관계를 굳이 내세우며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지만(그것은 우리를 철부지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철부지에게는 본능적인 의협심이 행위의 충동이 되는 걸로 형은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나도 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형의 의도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이었으니까—— 누나는 컹등으로 흘려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오해를, 옳다, 모든 오해를 누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영원히 풀어버릴 수 없는 오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무서운 결과를 무릅쓰지 않고서는 누나는 결코 그 오해를 풀어줄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너무나 막연한 표현들이다. 한마디로 말하고 싶다. 어머니는 영혼을 사러 다니는 마녀와 같다고 형은 경계하고 있었고 한편, 형은 빈틈을 쉬지 않고 노리는 어떤 악한 세력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나와 누나의 직관 속에서 보면, 분명히 아버지의 사망 후에 비롯된 것이었고 비록 은근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얼마나 끈덕진 것이었던지 이것의 어떤 해결 없이는 새로운 생활——새롭다고 한들, 남들은 별 생각 없이 예사로 사는 그런 생활을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었다.

형과 어머니는 주고받는 시선 속에서 우습도록 차디찬 오해를 나누고 있었다. 그뿐이다. 그뿐이다. 둘 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상상의 바다를 설정해놓고 그곳을 굳이 피하려고 하는 뱃사람들처럼 어머니와 형도 간단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던 것인가.

누나가 마지막까지 눈물겨운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모래가 따가운 해변에서 돌아와서 일주일인가 지난 날 밤이었다. 누나는 그날 저녁 학교를 쉬고 노트에 부지런히 글을 짓고 있었다. 열여섯 살짜리 계집애로서는 그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력이었다. 나는 남포에 석유를 붓고 누나가 쓸 연필을 깎아놓았다. 그리고 나서 누나 곁에 엎드려서 근심스럽게 누나의 노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문은 이런 것이었다.

〈내 어머니의 ‘남자관계’를 내가 어렸을 때는 막연한 어떤 심리에 사로잡혀 미워하고 심지어 내 어머니는 ‘갈보’라고까지 욕을 했고

그리고 나의 기억에도 아버지와 놀던 세세한 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타게 그리워했고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어머니를 더욱 미워하게 됐고 그래서 혹시 그런 남자가 집에 오기라도 하면 나는 일부러 방문을 탁 닫기도 하고 큰 장독으로 돌을 가져가서 차마 독을 쾅 깨어 버리지는 못하고 땡땡 두들겨보고 그러다가 그 독아지 속에서 울려 오는 무거운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며 어머니에 관한 일은 잊어버리기로 하곤 하였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처럼도 어머니를 못 이해하고 있었다니, 하는 후회만이 앞선다. 어머니가 사귀던 몇 남자들의 얼굴을 나는 똑똑히 외우고 있다. 그들은 차례차례 어머니를 거쳐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들의 용모에는 공통된 점이 많았다. 눈이 쌍꺼풀이라든지 콧날이 오뎅하고 얼굴색이 비교적 창백하다든지 하여간 나의 기억 속에 그들의 얼굴은 서로 비슷했다. 그리고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놀랍게도 아버지의 얼굴과 거의 일치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사귀고 있는 남자를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옛날 당신의 한창 젊음을 바쳐 사랑하던,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날을 생각할 것이다. 아아, 어머니는 얼마나 아버지를 찾아 헤매었던 것일까. 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불쾌감을 모질도록 일으키던 어머니의 ‘남자관계’는 곧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이 작문은 거의 완전한 허구였다. 그러나 최후의 노력이었다. 누나는 그 작문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기도하듯이 손을 모으고 다락방으로, 지옥으로 올라가고 있는 한 사도(使徒)의 순결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루하도록 오랫동안 그 사도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윽고 다락의 층계를 밟고 사도는 피로한 모습을 하고 내려왔다.

절망. 형은 발광하는 듯한 몸짓으로 픽 웃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누나에게 이런 뜻의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남자관계’를 너는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실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극기일 뿐이다. 극기일 뿐이다. 극기일 뿐이다……

“옛날 일을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세요?”

“후회하냐고?”

교수님은 무슨 소리냐는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뜨셨다. 그러자 그러한 당신의 표정이 서운하셨던지 입술을 주름짓게 모아 쑥 내민 채 애처롭게 웃으셨다.

또 형은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나에게 대한 운명적인 요구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와 누나에게는 이 말처럼 미운 것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마. 남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세속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게는 왜 이렇게 험악한 벽으로 생각되는지, 나는 참 불행한 놈이다. 절망. 풀 수 없는 오해들. 다스릴 수 없는 기만들. 그렇다고 장난꾸러기 같은 미래를 뻔히 내다보면서도 눈감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절망. 절망. 누나와 나는 그 다음날 저녁, 등대가 있는 낭떠러지에서 밤 파도가 으르렁대는 해변으로 형을 떠밀었다. 우리는 결국 형 쪽을 택한 것이었다. 미친 듯이 뛰어서 돌아오는 우리의 꺾전에서 갯바람이 웅 웅댔다. 얼마든지 형을, 어머니를 그리고 우리들을 저주해도 모자랐다. 집으로 돌아와서 불을 켜자 비로소 야릇한 평안을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였다. 판자문을 삐걱거리며 열고 물에 흠뻑 젖은 형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우리의 눈동자는 확대된 채 얼어붙어버렸다. 형은 단 한마디, 흐흐 귀여운 것들, 해놓고 다락방으로 삐걱거리며 올라갔다. 그리고 사흘 있다가, 등대가 있는 그 낭떠러지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죽은 것이었다. 나와 누나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오해에는 어떻게 손대볼 도리

없이 우리는 성장하고 만 것이었다.

만화로써 일가(一家)를 이룬 오선생 같은 분도,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일을 하다가 문득 윤리의 위기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다, 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 윤리의 위기라는 거창한 말을 쓰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작은 실패담이라고나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당사자에게겐 꽤 심각한 문제인 모양이다. 이야기인즉, 하얀 켄트지를 펴놓고 먼저 연필로 만화 초(草)를 뜬다. 그리고 나면 펜에 먹물을 찍어 연필 자국을 덮어 그리는데 직선을 그려야 할 경우에 어쩐지 손이 떨려서 그만 자를 갖다대고 그려버릴 때가 가끔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 그리고 난 뒤에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자꾸 그 직선 부분에만 눈이 가고, 죄의식이 꿈틀거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고 한다. 그건 당신의 선(線)이 아니다. 그것은 직선이라는 의사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자(尺)의 선이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려 하는구나, 라고

형 같은 경우는 아예 비길 수 없이 으리으리하게 확립된 질서 속에서 오선생은 살고 있는 것이지만 긍정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하는 따위의 의미를 일체 떠난 순종의 성곽 속에도 밤과 낮이 있는 모양이었다.

“오늘 저녁 입관하시는 데 가보시겠군요?”

나는 고개를 돌려서 물었다. 교수님은 난처한 웃음을 띠셨다.

“내가 올까?”

“네?”

“정순의 죽은 얼굴을 보고 내가 올까?”

“물론 안 우시겠죠”

“.....”

“.....”

“그렇다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군.”

옳은 말씀이다. 이제 와서 눈물을 뿌린다고 해서 성벽이 쉽사리
무너져 날 것 같지도 않은 것이다.

“슬프세요?”

내가 웃으며 물었더니

“글쎄, 지금 생각중이야.”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할 수 없이 또 한번 웃고 말았다.

(1962)

